보성군, '소통600 문자한통' 운영… 군민 소통 강화

직통 문자 창구 22일부터 운영
고충, 건의사항 신속히 처리
검토 필요시 2일 이내 응답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 목표

보성군이 한발 앞선 소통을 위한 '직통 문자 창구' 운영에 나섰다. 군민들이 군수 직통 연락처에 애로사항 등을 보내면 타당성을 검토해 즉각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민원 상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24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터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군수 직통 문자 전용 휴대전화 서비스(010-5438-0600) '소통600, 문자 한통'을 운영중이다.

'소통600, 문자 한통' 서비스는 군수가 직접 군민들의 불편과 고충,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한 소통 창구다.

보성군민들은 소관부서나 담당자를 확인할 필요 없이 평일 야간, 주말을 포함해 언제든지 직통 문자로 불편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접수된 문자 중 간단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 혹은 유선으로 2일 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처리되며 주말(금요일 오후 6시~일요일) 건은 오는 평일에 안내된다.

보성군은 이번 소통 창구 개설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들과 가장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며 "주민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통 행정을 펼치고 지역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장흥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달 26일까지 비대면

장흥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8월26일까지는 정부24앱을 이용한'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의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치기반(GPS)으로 확인되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8월27일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군, 아동급식시설 현장점검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장흥군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지역 내 아동급식 제공업체 2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 14개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아동급식 제공업체를 집중 점검하여 결식아동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는 식재료 보관 상태, 조리시설 위생상태, 시설 청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유통기한 및 조리원 위생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 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급식 제공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관리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흥군 관계자가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하고있다. 고흥군은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를 읍면 민원실에 설치 운영 중이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운영

고흥군이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를 읍면 민원실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는 모바일 신분증의 암호화된 개인정보 QR코드를 스캔해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검증하는 기기로, 기존에는 업무 담당자가 휴대폰 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단말기는 고흥읍 등 11개소 민원실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군청 민원실 등 나머지 8개소(군청, 봉래, 동일, 영남, 대서, 남양, 시산·소록출장소)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설치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정부 발행 공식 디지털 신분증으로 최근 젊은 계층에서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증을 도입해 시행 중이며, 오는 12월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순천 대표음식 포장지 제작 지원 내달 2일까지 희망자 모집

순천시는 관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대표음식 홍보 포장지 제작 지원' 희망자를 오는 8월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순천시의 특색있는 먹거리 및 도시락을 생산·유통하는 식품위생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포장지 제작 및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3~4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포장지 지원을 희망하는 음식점, 즉석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순천시청 관광과 미식관광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ohj61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순천 대표음식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미식관광 도시 순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내 외식업체 미식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여행 가는 날' 시티투어 광역 코스 참가자 선발

광양시가 도시관광(시티투어) 광역코스 '광양여행 가는 날'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여행 가는 날'의 7월 주제는 무더위는 날리고 감성은 충전할 수 있는 '야경&음악분수'다. 총 2회로 한정 운영되며 26일과 27일 양일 오후 3시에 광주유스퀘어 3번 홈에서 출발한다.

도시관광(시티투어) 참가자들은 광양와인동굴을 방문한 후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즐길 예정이다. 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해오름육교, 이순신대교,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마동생태공원의 화려한 음악분수, 망덕포구의 정병욱 가옥, 배알도 섬 정원 등 은은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들을 방문하게 되며 오후 11시까지 유스퀘어로 돌아가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게 된다.

참가 신청은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남도한바퀴 홈페이지 시티투어 코너 '광양여행 가는 날' 또는 유선(062-360-8502)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1만5000원이며 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광양시티투어 광역코스는 편리한 접근성과 차별화된 코스로 매달 매진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며 "광양 관광을 브랜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오감을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코스를 개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공모전

순천시는 독창적인 도시경관 조성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 '2024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원 도시다운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문화예술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름다운 건축상'은 최근 5년간(2020년~작품접수일) 사용승인된 순천시에 소재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응모작을 접수받는다.

우수작 2개소 가작 2개소로 각각 주거, 비주거 부문으로 건축상을 선정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며 "관심 있는 건축주와 설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 그린PC 무상 보급 정보격차 해소 지원

광양시는 전남도와 연계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정보통신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취약 계층에게 단체 기증되거나 수집된 중고 PC를 정비해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정보통신기기 구매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광양시에 주소(주민등록지,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8월30일까지다.

개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광양시청 디지털정보과(061-797-2804)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문 신청 방식과 우편(이메일 포함)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단체의 경우 전남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실(061-286-2723)로 우편(이메일, fax 포함)으로만 가능하다. 신청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되며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www.gwang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신 디지털정보과장은 "사랑의 그린PC는 나눔 정신이 더해진 사업으로 정보 소외계층에게 PC를 보급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